산업통상부

보도설명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11. 10.(화)

산업용 가스요금은 LNG 도입원가를 반영하여 조정되며, 정부가 기업에 가격 상승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9.(월) 매일경제 「가스값 66% 폭등...기업에만 청구서 날아왔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
○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산업용 가스요금이 전년 대비 약 66% 상승한 반면, 민수용 요금은 동결되어 정부가 LNG 가격 상승 부담을 산업용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산업용과 민수용 가스요금은 용도별 원료비 조정체계에 따라 각각 운영되며, 정부가 LNG 가격 상승 부담을 산업용에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○ 산업용 가스요금은 국제 LNG 도입가격 및 환율 등을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월 조정되며, 그간의 요금인상은 LNG 도입원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.

○ 반면, 민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물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미회수 원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누적되어 향후 민수용 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로, 산업용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
□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요금부담, 가스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스요금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	한주현 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찬 (044-203-521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